

현대 독일어 시제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鄭 東 奎
(獨文科 助教)

<목 차>

- | | |
|-------------------------|---------------------|
| 1. 목적 및 방향 | 3. 시제와 시간부사의 통사적 도입 |
| 2. 시칭기술을 위한 기본개념 | 문제 |
| • 기본 시제 개념 | 4. 현대독일어 단편의 시칭기술 시 |
| • 시제연산자(Tempusoperator) | 도 |
| • 시간부사표현 | 5. 독문요약 |

1. 목적 및 방향

시제(Tempus)자체가 독일어와 같은 時制語에서 유일한 필수적(obligatorisch)시칭표현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제는 의미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연언어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포괄적인 시제연구가 결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미 Aristoteles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양태(Modalität) 및 시제논리(temporale Logik)에 대한 정의문제가 제기된 이래, 자연언어의 시칭체계에서의 형식적 구조가 문제시 되면서 J.M.E. McTaggart에 의해 시간이 非實在的이라는 주장을 거쳐 현대시제논리학에서 먼저 시제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나아가 H. Reichenbach가 자연언어에 대한 종전의 二元的 분석방법(발화시 Sprechzeit, 행위시 Aktzeit)에 언급시(Betrachtzeit)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실마리를 찾았고, A.N. Prior가 종래의 시제논리학적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시칭분석에 대한 시제논리학적 기술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와같이 시제의 시간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논리학적 개념들을 도움으로 해서 발전시킨 수단들이 사용되면서 시칭요소 및 시칭관계에 대한 연구가 급격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어의 시칭의미 기술에 대한 종래의 연구들은 대부분 문장의 시칭요소들 중에서 시제 자체만이 다루어졌었다. 다시말해서 문법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서 형태소적 범주만이 취급되었다. 최근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서 H. Vater, D. Wunderlich, H.G. Klein, C. Rohrer, R. Bäuerle, A.v. Stechow, W. Bartach, E. König, J. Nerbonne등이 독일어의 시칭구조를 전개하기 위해 Reichenbach의 체계를 수정 및 확대적용하여 상이한 문맥적 변수(Parameter)를 사용하거나, 시제논리를 바탕으로한 시간지표(time index)를 사용

하고 있다. 이들이 비록 독일어의 시칭기술에 대해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고는 할지라도, 아직 전통문법적 동사범주에 대한 분석방법에 머물러 있거나(H. Vater, W. Bartsch, H.G. Klein등), 시제논리적 분석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C. Rohrer, A.v. Stechow등) 때문에 보다 많은 개선과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본연구는 현대독일어의 시제에 대한 시간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 먼저 몇가지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시제와 시간부사의 통사적 도입 문제와 시제가 문장에 도입되어야 할 시기를 적절히 규정함으로써 현대독일어 단편(Ausschnitt)에 대한 형식적 시칭기술을 전개해 보려고 한다. 이때 독일어 단편에 대한 시칭기술에 있어서는 Montague문법의 기본계획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PTQ(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Ordinary English)를 수정하고, 시간부사에 대한 유형 및 번역규칙을 설정함으로써 독일어 시칭기술에 대한 종래의 연구를 보다 개선해 보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D.R. Dowty의 영어에 대한 분석이 많은 참고가 되었음을 밝혀 둔다. 아울러 Reichenbach의 시간매개변수(Zeitparameter)가 대부분의 시제연구에서 익숙하게 통용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그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Sprechzeit(t_s): 발화시간

Betrachtzeit(t_b): 지시된 시간으로, 종종 부사표현으로 명기된다. (gestern, am 21. 12. 1983 usw.)

Aktzeit(t_a): 발화된 사건이 일어난 시간으로, Betrachtzeit의 부분시간간격(Teilzeitintervall).

다음에는 시칭기술을 위한 토대로서 몇몇 기본개념을 설정해 보자.

2. 시칭기술을 위한 기본개념

모든 시제연구에 있어서 시제(Tempus)와 시간(Zeit)의 명백한 구분¹⁾이 마땅히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광의로 볼 때, 시제범주인 grammatische Zeit의 임무란 형태적이고 어휘적이며 문맥적인 수단들을 도움으로 해서 natürliche Zeit와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시제와 시간개념의 혼동을 통해 시제연구에서 오랫동안 현저한 발전이 저해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자연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파악에서 오래전에 언급된 형식(Form)과 내용(Inhalt)의 불일치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시간지시의 문법적 범주로서의 시제 형태와 객관적 시간개념 사이의 일대일 대응이 직접적으로는 회피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예를들어, 현재형(Präsens)의 경우, 이 형태는 결코 현재시제(Gegenwartstempus)로만 간주될 수 없으며 나아가 화자의 현재적 진행과정만을 지시할 의무도 없다. 즉, 각각의 시제형태들은 각각의 시간層位(Zeitstufe)에 대해 단일하고 확정된 절대치(absolute)

1) Klein, H.G. (1974): Tempus, Aspekt, Aktionsart, S. 5; "시제는 grammatische Zeit이고, 시간은 natürliche Zeit이다."

luter Wert)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현재형은 미래가 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과거를 언급할 수도 있고, 어떤 시간층위에도 속하지 않는, 또는 모든 시간층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진술을 표시할 수도 있다. 다음의 문장들을 살펴보자.

- (2) a. Ich warte, bis du hierher kommst.
- b. Wann fährt der Zug ab?
- (3) Bundeskanzler Willy Brandt bekommt 1971 den Friedensnobelpreis für seine Entspannungspolitik mit dem Osten.
- (4) 2 und 3 macht 5.
- (5) Liebe macht blind.

(2)는 소위 futurisches Präsens, (3)은 historisches Präsens로서 현재형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aktuelles Präsens와 아주 상이한 시간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4), (5)는 어떤 시간층위에도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시제형태가 지니는 이러한 變異(Variante)는 바로 시제개념이 지닌 가변적 상대치(relativer Wert)라는 특성을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시제연구란 형태소적 범주와 시제 자체만의 범주를 뛰어 넘어야만 비로소 적절히 기술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태소적 범주 이외에도 발화상황이나 진술유형(Äußerungstyp), 특히 시간부사표현이 마땅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시제개념의 파악에 있어서 A.N. Prior와 같은 초기 시제논리학자들은 시제형태와 시칭부사의 분석을 각각 분리해서 제시하면서 둘중 어느 하나는 잉여적(redundant)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시제형태가 결코 잉여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장의 진리치가 시간에 따라 不變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진리치가 비시칭적(atemporal)이라면, 시제는 전혀 무의미하다. 즉, 어떤 시점에서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모든 시점에서도 ‘참’이라고 주장될 수는 없다. 다음의 문장(6)을 개략적으로 형식화하면 시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미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명하게 나타난다.

- (6) a. Heute hat Ede eine Pizza gegessen.²⁾
- b. Heute wird Ede eine Pizza essen.
- c. ((Ede, essen, Pizza), heute)

따라서 Tichy, P. (1980)에서 처럼, 시제란 어떤 시점에서 ‘참’인 것이 다른 시점에서 ‘참’이 아닌 경우, 또는 그 역인 경우에만 단지 서로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독일어의 시제형태를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독일어에는 6개의 시제형태가 각각 3개의 시간층위에 병렬되고 있다;

- a) Präteritum, Präsens, Futur I, Futur II, Perfekt, Plusquamperfekt.
- b) Vergangenheit, Gegenwart, Zukunft.

2) Bäuerle, R. (1979): Temporale Deixis, Temporale Frage, S. 8.

이때 대부분의 시제형태는 그대로 통용될 수 있으나, 소위 미래시제로 여겨지는 werden+Inf 형태를 과연 미래형이라는 시제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는지가 의문시 된다.

다음의 문장 (7)을 보자.

- (7) a. Morgen besuche ich ihn.
b. ? Morgen werde ich ihn besuchen.

(7)의 미래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동사형태로 werden+Inf는 일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7)b의 문장에서 werden은 시간을 전달하기 위한 Hilfsverb라기 보다는 오히려 Können, müssen...등과 같은 양태동사(Modalverb)로서 추측이나 기대를 전달하는 조동사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다음의 문장들은 어느 것도 미래적 시간의미를 진술하지 않는다.

- (8) Er wird noch zu Hause sein.
(9) Ein guter Vater wird stets seine Kinder lieben.
(10) Gestern wird mein Sohn den Apfel gegessen haben.

werden+Inf를 시제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주로 werden이라는 동사자체가 지닌 속성에서 비롯된다. werden의 해당 속성은 일단 다음의 문장(11)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소위 미래시제가 Neuhochdeutsch에 유입되는 과정에서도 미래시제를 시제형태로 이해하기 힘든 요인이 발견된다.

- (11) a. Er wird Arzt ⇔ Er ist Arzt.
b. Ich werde müde ⇔ Ich bin müde.

Ahd.에서는 시제형태로서 과거형과 현재형 만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대신 그들은 미래에 대한 언어적 표기체(미래형)로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Mhd.에 와서 동사의 복합표현에 대한 풍부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미래의 표기는 현재형 뿐만 아니라 Modalverb와 결합된 표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Modalverb로는 주로 sculan 'sollen'이, 아주 드물게는 wellen 'wollen'이 선택되고 있다.³⁾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해당 Modalverb가 2중기능—Hilfsverb, Modalverb—을 수행했음이 밝혀진다.

- (12) ich soll gehen { 'ich werde gehen'⁴⁾
'ich bin aufgrund von x verpflichtet zu gehen'

3) Czichocki, S./ Trempelmann, G. (1969): Althochdeutsch, in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hrsg. von W. Schmidt, S.184.

4) Chrismann, O./Ramge, H. (1976): Mittelhochdeutsch, S.57f.

이러한 조동사의 사용은 Mhd.에서 점차 *sol*, *wil*, *muoz*, *werden* 등으로 확장되는데, 이러한 동사들의 2중의미 요소인 양태적 의미사용과 미래표기체로서의 대응성은 Mhd.에서 Nhd.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단지 *werden*으로 보다 확고하게 고정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미래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Mhd.의 많은 Modalverb중 *werden*은 다른 Modalverb가 지니는 의미차질 [+Verpflichtung], [+Zwang], [+Fähigkeit], [+Lust]…등과 달리 [+dynamisch]를 취함으로써 가장 미래적 사용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과정으로 미래형이라는 시제형태가 되었다고 해서 본래 지니고 있는 일반적 2중기능이 단일화 되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점점 현대로 오면서 시제의미의 다양화가 이루어 지면서 많은 표현들이 *werden*+Inf가 지녔던 시제의미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종래의 미래형에서는 시간의미 보다 Modalverb로서의 의미가 점점 부각되어 나타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⁵⁾ 이와같이 *werden*+Inf형태를 취급함으로써, 종래의 미래형을 시제로 인정할 때 나타나는 많은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으며 시간의미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정확한 기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대독일어의 기본시제범주로 과거형과 현재형을 실정하며, 각각의 시제형을 PRÄT와 PRÄS의 시제연산자로 포착한다. 그리고 종래의 미래형에 대해서는 Modal W를 연산자로 부여한다.

다음에는 시제연산자(Tempusoperator)의 설정문제를 고찰해 보자. 지금까지 시제에 대한 대부분의 형식적 기술에서는 Prior식 연산자(Operator)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Prior식 연산자는 이미 여러학자에 의해 그 부적합성이 지적되었다. (Gabbay/Rohrer, 1977, Bäuerle, R., 1979, Bäuerle/Stechow, 1980, Dowty, D.R., 1982 등 참고)

다음의 문장(13)을 살펴보자.

(13) Hans begegnete Marie gestern.

일반적으로 (13)은 2가지 서로 상이한 방법으로 시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동사의 시제가 맞남이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사 *gestern*이 시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후자는 전자의 시간의미를 보다 세분화해서 *am Tage vor heute*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위 2개의 시칭요소들은 통사적으로 상호 독립적으로 나타나는데, 전자는 동사의 접미사(Suffix)로, 후자는 부사 즉 문장부사로 나타난다. 문장(13)을 Prior식 연산자로 기술하려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연산자 P와 해당부사에 상응하는 연산자 G가 필요하다. (13)을 P와 G로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다음의 2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13') a. PG [begegnen (Hans, Marie)]

5) 미래형을 시제로 여김으로써 나타나는 시간의미 파악상의 의문은 이미 Vater, H. (1969)와 Engel, U. (1977)에서도 그 발단을 찾을 수 있다.

b. GP [begegnen (Hans, Marie)]

그러나 (13') a나 b는 어느 것도 (13)의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즉, a는 발화 이전의 어느 시간을 가리키며, 그 발화 이전 시간의 바로 전날에 있는 어느 시간은 가리켜서 그때 맞남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이는 맞남이 아주 먼 과거에 이루어졌음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b도 별로 다르지 않다. b는 먼저 어제의 시간을 가리키며 어제의 시간 이전의 시간을 가리켜서 맞남이 어제 이전의 시간에 이루어졌음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연산자의 설정은 Prior, A.N. (1968)에서 언급되고 있는 E.J. Lemmon의 최소시제논리(minimale Zeitlogik) K_1 에 의한 방법으로도⁶⁾ 역시 사정은 같다. (13)은 K_1 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14) a. $P[Ta;p]$ b. $Ta;P(p)$

이제 A.N. Prior 등 대부분의 시제논리학적 시칭기술에서의 연산자 설정에서는 물론이고 Montague의 PTQ에서도 설정되고 있지 않은 현재시제에 대한 연산자문제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시제논리에서의 마찬가지로 PTQ에서는 현재시제를 atemporal하게 취급하고 있다. Montague에 의하면,⁷⁾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시제논리는 모든 시제의 문장에 대한 출발점이 현재시제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현재시제 문장이란 바로 非時制 문장으로 여타의 시제를 지나는 문장들은 현재시제에 시제연산자를 적용함으로써 설정되어 진다. 따라서 Montague는 2개의 시제연산자를 채택하고 있는데, P(과거형)와 F(미래형)이며, 이와 더불어 perfective 'HAVE'와 modal 'WILL'도 연산자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PTQ에서 과거나 미래시제란 현재시제(즉, 非時制) 문장의 일상적인 진리조건을 다른 시점으로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때 각각의 시제연산자를 순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개 이상의 연산자가 있는 문장을 생성하고 있다. 예를들어, $PP\phi$ 는 과거완료형의 문장이고, $FP\phi$ 는 미래완료의 문장을 나타낸다. 이때 전자는 $P\phi$ 가 '참'인 발화시점에 선행하는 어떤 시간을 언급하며, 후자는 $P\phi$ 가 '참'인 어떤 미래시간을 언급하며 동시에 ϕ 가 '참'인 미래시간에 선행하는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적 체계는 자연어의 다양한 시제기능이 대해 어떤 자연스런 해결책도 마련해 주지 못하며, 특히 시제가 시간부사에 의해 특별한 시간을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 차단하고 있다. 또한 연산자의 순환적 사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PPP\phi$, $PPF\phi$, $PFPP\phi$ 등과 같은 형태는 결코 자연언어에서 발견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시제연산자를 설정할 때 소위 aktuelles Präsens와 같은 현재시제의 일반적 시간의미 파악이 어렵게 되며, 시제의 非限定的 해석(indefinite Interpreta-

6) Prior, A.N. (1968): Papers on Time and Tenses, S.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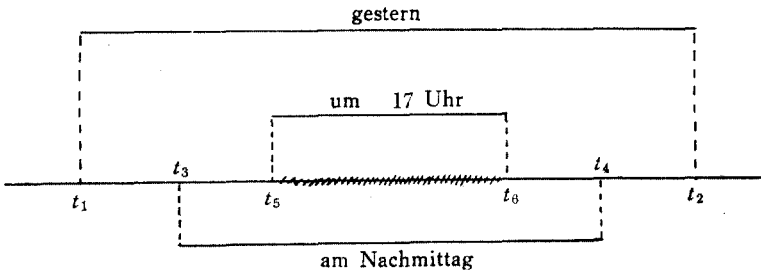
7) Dowty, D.R. (1978): A Guide to Montague's PTQ, S. 67.

tion)이 초래되어 시간부사와 시제의 상호 결합이 장애를 받는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현재 시제에 대한 시제연산자로서 PRÄS를 설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언어에서 현재시제가 지닌 실질적 시간지시관계를 포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시간부사표현과 결합된 시제사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제 의미에 대한 한정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시제연산자를 Reichenbach식의 언급시(Betrachtzeit)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지표, *i*와 발화시(Sprechzeit)에 해당하는 지표, *j*를 가지고 나타내면, 과거형 연산자인 PRÄT는 *i*가 *j*보다 선행하며($i < j$), 현재형인 PRÄS는 *i*와 *j*가 동시적이며(i, j), 미래형 연산자인 FUT는 *i*가 *j*에 후행하게 된다($i > j$). 이때 FUT가 연산자로 채택된 것은 종래의 werden+Inf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타의 시제가 포층적으로 전달하는 시간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문장의 진리치가 시간에 무관하게 취급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t_1 에서 ‘참’이고 t_2 에서 ‘거짓’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t_1 이나 t_2 를 시간지표(temporal index)라고 칭한다. 이때 시간지표를 시점(Moment)가 아니라 시간간격(Zeitintervall 또는 Zeitspanne)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러한 견해는 시간부사가 해당문장에 의해 표현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간격을 명기한다는 언급⁸⁾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문장의 시간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시간부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본시제범주가 수많은 시간변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시간부사의 사용과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시간부사에는 one time adverb 개념을 적용한다. 즉, 시간부사가 둘이상 연속되어 복합적으로 사용될 때에도 그 복합부사표현은 단지 하나의 시간만을 언급시로 지니게 된다. 따라서 복합부사표현은 여러 상이한 언급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언급시를 보다 상세하게 명기할 뿐이다.

(15) Ich habe ein Telegramm gestern am Nachmittag um 17Uhr bekommen.



소위 언급시(Betrachtzeit)란 시제와 시간부사표현과의 결합을 통해서 명기되며, 이때 그 결합은 상호 모순없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16) *Ich las in dem Buch am Sonntag am Freitag.

(17) In 3 Tagen fiel das Fie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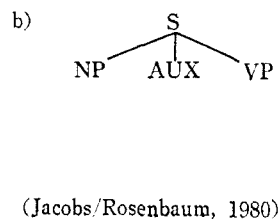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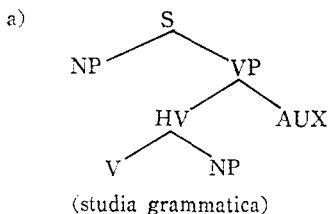
8) Gabbay, D./Rohrer, C. (1977): Relative Tenses, in C. Rohrer (ed.), Papers on Tense, Aspekt and Verb Classification, S. 99.

(16)은 일상적인 해석을 받을 경우 부사표현이 하나의 언급시를 지칭하지 못함으로 非文法的이고, (17)은 시제와 부사가 모순없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보충정보가 없는 한 의미적으로 불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시간부사는 여타의 부사표현과 상이하게 기능함으로써 문장을 논항(Argument)으로 취하는 문장연산자(Satzoperator)로 간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부사표현은 시제와의 상호 관련을 통해 표층적 시간지시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때 시간부사에 대한 유형 및 번역규칙은 4장에서 규정하기로 하고, 이제 시제와 시간부사의 통사적 도입문제를 고찰해 보자.

3. 시제와 시간부사의 통사적 도입문제

문장의 논리적 형태와 표층통사구조를 가능한 한 접근시킴으로써 통사론과 의미론의 상호 대응적 관계(Isomorphismus zwischen Syntax und Semantik)를 설정하려는 Montague 문법의 계획에서 볼때, 시제의 통사적 도입 문제는 여타 어휘요소들의 도입문제와 전혀 상이한 양상을 지닌다. 시제와 여타 어휘요소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전자가 단지 동사의 형태소(Morphem)나 아니면 몇몇 Hilfsverb와의 결합을 통해서 통사적으로 실현되지만 그 의미적 지시는 문장전체와 관련을 맺고, 또한 시제의 지시의미 자체가 종종 문장법주를 뛰어넘어 설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문장의미론(Satzsemantik)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요인들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시제의 시간지시의미 및 관계를 해명하는 데에는 시간부사라는 또다른 요소와 시제가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에 대한 규명을 토대로 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시제라고 하는 문법적 범주가 통사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도입되어야 독일어의 시간의미관계를 Montague식 의미기술에 적합하게 전개할 수 있는 지가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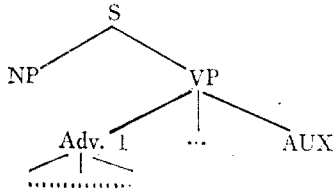
먼저 문법적 범주로서의 시제가 통사범주에 위치하는 가능성을 살펴보면, 시제가 AUX (Auxiliarkomplex)에서 동사의 자질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AUX가 PS-Regel에 의한 통사기술에서 도외시 되지 않는 한, AUX의 도입방식은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⁹⁾(F. Hundsnurscher, LGLI, 1973, S. 201)



9) Bartsch, W. (1980): Tempus, Modus, Aspekt, S. 22.

일반적으로 a) 유형과 b) 유형은 동일하게 AUX에 [±Tense]의 자질이 부여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present/will/...등의 시제가 도입되게 되어 있다. a) 유형과 같은 방식에 따르면, 이미 Chomsky, N. (1957)에 제시되었던 소위 표준이론(Standardtheorie)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제가 PS-Regel에 따라서 Auxilarkomplex에 나타나는 VP의 Tochterknoten에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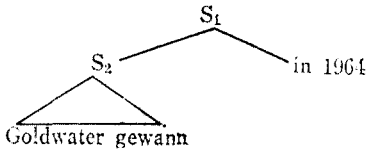
(18)



(18)에서는 전통문법에서의 마찬가지로 시제나 부사규정어(Adverbialbestimmung)가 술어(Prädikat)의 부분으로 표시되어 주어기능을 하는 NP나 전체문장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직접적인 無關係를 통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G. Lakoff(1972)가 다음과 유사한 예문을 통해 지적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원인부사표현, 장소부사표현, 그리고 시간부사표현 들을 보다 높은 단계의 술어로 여기고 있다. 즉, 해당부사표현들이 논리구조(logische Struktur)와 유사하게 문장논항(Satzargument)을 지니는 상위의 술어로 간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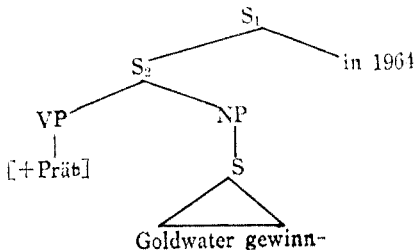
(19) Goldwater gewan in 1964, (aber dies hätte in 1972 nicht geschehen können.)

(19')



또한 G. Lakoff은 (19')의 S₂에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Prät을 VP에 속하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시제와 시간부사가 한 문장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지니도록 장치하고 있다. :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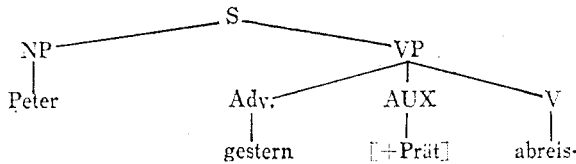
이러한 Lakoff의 주장이 물론 개별적으로는 몇몇 통사적인 문제를 야기했다손 치더라도, 시제와 시간부사에 대해 (18)에서 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서도 아직 시제와 시간부사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시간이의의 다른 부사표현까지도 모두 문장을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독일어의 경우 재고의 여지가 많다. 이상에서 살펴본 a) 유형의 방식은 시제에 대한 Montague적 시칭기술에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 즉, 전반적으로 시제가 VP의 Tochterknoten에 나타나게 됨으로써 시제가 문장을 범위(Skopos)로 취하는 Operator로 설정되는데 장애가 된다.

결론적으로 a)유형에 따라 다음의 문장(20)의 수형도를 만들어 보면, a)유형이 지닌 시칭해석상의 부적합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20) Gestern reiste Peter ab.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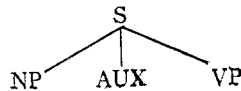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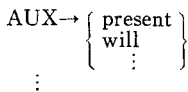


(20')에서 AUX는 VP에 의해 직접지배를 받음으로써 표층통사구조를 문장의 논리구조와 일치시키려는 Montague식 통사·의미론적 해석에 부적절하며, AUX가 과거형으로서의 abreis-의 정동사 형태 abreiste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시간부사 gestern과의 시간지시 관계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gestern이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

다음에는 AUX가 VP범주가 아니라 직접 S에 의해 지배되는 b)유형의 도입방식을 살펴보자. 이때 b)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1) S→NP—AUX—VP

b)



b)유형에서는 AUX가 S에 직접지배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일단 a)유형에서 보여졌던 시제의 지배문제는 보다 개선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합당하게 처리된 것은 아니다. 다음의 문장 (22), (23)은 b)유형의 구조에 상충되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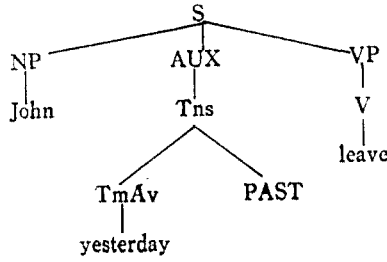
(22) Hans ist in die Schule gegangen, und ist jetzt hier.

(23) Inge wohnt in München, und wird nach Österreich umziehen.

즉, 동일하지 않은 시제를 지닌 동사구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문장에서 어떤 직접적인 방법으로도 (22), (23)의 합당한 문장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또한 Cooper, R. (1976)에 따라 b)유형의 NP-AUX-VP분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AUX가 tense marker와 tense adverbial을 지배하는 구조를 얻게 된다.

(24)



그러나 (24)에서 AUX는, Bach, E. (1980)에 따르면, 일종의 VP-operator이며, 시칭부사가 논항으로서 문장을 지니게 하려는 본연구의 취지에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Cooper는 시칭부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 만약 그가 NEGATION에 대해 취급하고 있는 장치 (25), (26)에 따른다면, 시간부사 역시 PS-Regel에 의한 Base에서 변형을 통해 적절한 표층구조를 유도해야만 할 것이다.

(25) S → (NEG) NP AUX 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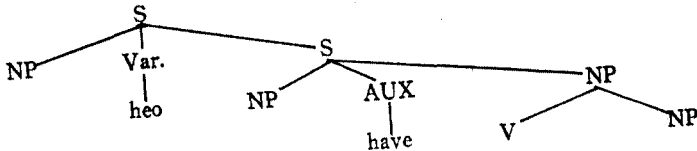
TR: ()AUX' (^NP'(^VP'))

(26) NEG placement → $\begin{cases} n't & NP & AUX & (have) \\ 1 & 2 & 3 & 4 \\ \phi & 2 & 3 & 4+1 \end{cases} \Rightarrow$

마찬가지로 Cooper, R. (1976)에서 사용된 Syntax에서 unambiguous한 심층구조를 PS-Regel에 의해 생성하고 그후 변형에 의해 표층구조로의 전환을 피하는 W. Ladusaw의 방법도 별로 상이하지 않다.

(27) Mary has found a unicorn that walks¹⁰⁾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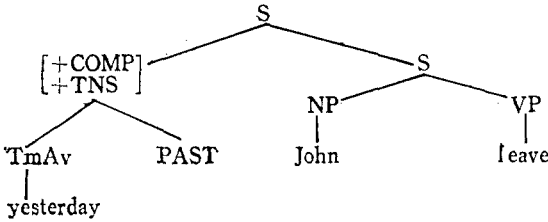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연구에서 의도하는 바대로의 의미론적 시칭기술을 피하기 위해 Pullum/Wilson의 가정(1977)을¹¹⁾ 설정해 보자.

10) Dowty, D.R. (1982): Tenses, Time Adverbs, and Compositional Semantic Theory, LAP 5:1, S. 41.

11) ebd. S. 29 재인용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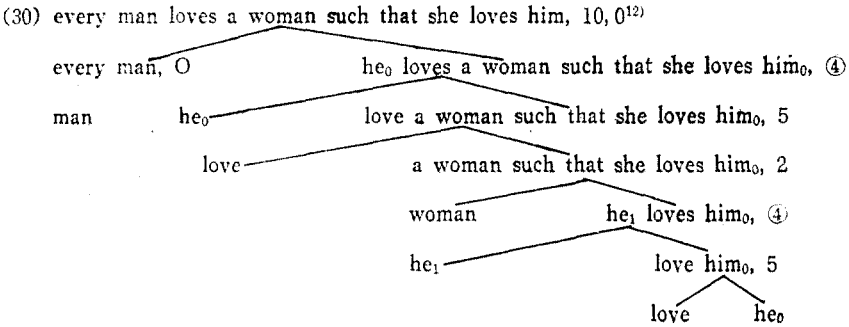
(28)에서는 시제가 complementizer node에 대한 통사적 자질로 도입되어 AUX가 아니라 complementizer가 시제와 시간부사를 지배하게 된다. 즉, 시제와 시간부사를 S의 상위 node(S)에 설정함으로써 시제와 시칭부사가 S를 논항으로 취하는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앞서 언급한 어느 구조보다도 시제와 시간부사의 문장연산자로서의 기능에 적합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OB(On Binding)나 LGB(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에서 INFL에 [\pm tense]가 설정되는 것과 상당한 거리를 지니고 있으나, Chomsky문법에서는 시칭의미는 고사하고 의미기술 전반에 대한 기술방법도 아직 적절히 언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그러면 이제 시제가 'bottom up' 구조를 지닌 Montague식 의미해석을 지니기 위해 과연 언제 도입되어야 의미번역상 합당한 지를 살펴보자. Montague는 모델이론적 해석을 위해 Frege의 원리, 즉 合成性의 原理(principle of compositionality)를 기초로 하게 되는데, Montague는 영어단편과 PTQ의 내포논리를 위해 집합 M'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Frege식 해석에 시간개념을 도입한다. 이때 집합 M'는 모든 집합이지만 단지 시점의 집합(set of moments of time)으로 분석되어진 집합을 의미한다. 그러면 PTQ에서 시제가 도입되는 과정을 알아 보기 위해 S₄와 시제와 기호의 규칙(rules of tense and sign) S.17을 보면 다음과 같다.

(29) S. 4 : $\alpha \in P_{I/IV}$ 이고 $\delta \in P_{IV}$ 이면 $F_4(\alpha, \delta) \in P_I$. 이때 $F_4(\alpha, \delta) = \alpha\delta'$ 이고 δ' 는 δ 에 있는 동사를 3인칭·단수·현재로 바꾼 형태이다.

S. 17 : $\alpha \in P_T$ 이고 $\delta \in P_{IV}$ 이면, $F_{11}(\alpha, \delta), F_{12}(\alpha, \delta), F_{13}(\alpha, \delta), F_{14}(\alpha, \delta), F_{15}(\alpha, \delta) \in P_I$.

즉, 다음의 analysis tree (30)에서 ④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주어와 함께 시제가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해 Bäuerle/Stechow(1980)는 서로 상이한 시제의 동사구가 동일한 주어에 병렬되는 문장이 PTQ의 S.4나 S.17에 의해 직접 생성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시제와 주어를 각각 분리시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¹³⁾

(31) Ede hat das Problem gelöst und wird morgen darüber berichten.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Quantifying in'이라는 technique를 통해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31') 1. er₁₀ hat das Problem gelöst,
 2. er₁₀ wird morgen darüber berichten
 3. er₁₀ hat das Problem gelöst und er₁₀ wird morgen darüber berichten(Conjunction)
 4. Ede,
 5. Ede hat das Problem gelöst und er wird morgen darüber berichten(Quantifying in)
 6. Ede hat das Problem gelöst und wird morgen darüber berichten(Pronoun-deletion)

이상과 같이 통사적으로 시제와 시간부사를 complementizer에 설정하고 시제를 주어와 함께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칭기술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음에는 독일어 단편에 대해 시칭기술을 시도해 보자.

4. 독일어 단편의 시칭기술 시도

이제 실질적으로 독일어 문장을 Montague문법에 따라서 내포논리어로 번역하기 위해 몇몇 개념들을 설정해 보자. 이미 1장에서 언급한 시제연산자는 Reichenbach식의 언급시(Betra-

12) Montague, R. (1973): 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Ordinary English, in Formal Philosophy (1979), S. 254.
 13) Bäuerle, R./Stechow, A.v. (1980): Finite and Non-Finite Temporal Construction in German, in C. Rohrer, Time, Tense and Quantifiers, S. 386.

chtzeit)를 나타내는 지표 i 와 발화시(Sprechzeit)를 나타내는 지표 j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2) a. α 와 β 가 핵문일 경우, $[[\alpha(\beta)]]^{i,j}=1$ g.d.w. $([[\alpha]]^{i,j} \cdot [[\beta]]^{i,j})=1$
 b. $[[PRÄT \phi]]^{i,j}=1$, g.d.w. $[[\phi]]^{i,j}=1$ 이고 $i < j$.
 c. $[[PRÄS \phi]]^{i,j}=1$, g.d.w. $[[\phi]]^{i,j}=1$ 이고 $i=j$.
 d. $[[FUT \phi]]^{i,j}=1$, g.d.w. $[[\phi]]^{i,j}=1$ 이고 $i > j$.

이와함께 시간간격을 나타내는 시간지표(temporaler Index) t 와 문장 ϕ 를 결합하여 ' ϕ ist wahr zu t '를 나타내는 연산자 'ZU'와 Reichenbach식의 언급시를 나타내는 t^* 를 설정한다.

- (32) e. $[[ZU(t, \phi)]]^{i,j}=1$, g.d.w. $[[\phi]]^{i',j}=1$ 이때 $i' = [[t]]^{i,j}$ (여기서 j 는 t 의 치를 결정하는 것 이외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f. $[[t^*]]^{i,j}=1$ (즉, t^* 는 언급시이다.)

또한 'ZU'와 t^* 를 가지고 각각의 시제연산자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3) PRÄT $\phi \equiv \exists t[t < t^* \wedge ZU(t, \phi)]$
 PRÄS $\phi \equiv \exists t[t = t^* \wedge ZU(t, \phi)]$
 FUT $\phi \equiv \exists t[t > t^* \wedge ZU(t, \phi)]$

이때 t^* 는 시제형을 통해 단독으로 명기된다기 보다 오히려 시제형과 시간부사의 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기된다. 따라서 시간부사가 결합된 문장에서는 t^* 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시간부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one time adverb 개념으로 이해하고 특히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일종의 문장연산자(Satzoperator)로 여기며, 예를들어 heute나 gestern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 (34) heute $\Rightarrow \lambda P_t \exists t[t \subseteq \text{heute}' \wedge P_t(t)]$
 gestern $\Rightarrow \lambda P_t \exists t[t \subseteq \text{gestern}' \wedge P_t(t)]$

위 (34)에서 heute나 gestern은 시간간격의 집합의 집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시간부사를 취급하는 이유는, PTQ에서 시간부사가 다른 부사표현과 구별되어 특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시제와 시간부사 사이의 집합이 적절히 기술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시간부사를 문장에 도입하는 동사규칙과 번역규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35) SR₁₂ : $\alpha \in TmAv$ 이고 $\phi \in t(\text{문장})$ 이면, $F_{12}(\alpha, \phi) = \alpha\phi'$ 또는 $\phi'\alpha$ (이때 ϕ' 은 해당시간부사와 양립할 수 있도록 채택된 시제문장)
 TR₁₂ : $\alpha'(\wedge \lambda t[t = t^* \wedge ZU(t, \phi')])$

이상에서 마련된 장치를 이용하여 개별 독일어 문장을 내포논리어로 번역해 보자.

(36) Maria läuft.

(36') a. Maria $\Rightarrow \lambda PP\{m\}$

b. laufen $\Rightarrow \text{laufen}'$

c. Maria läuft. $\Rightarrow \text{PRÄS}[\lambda PP\{m\}(\wedge \text{laufen}')] \Rightarrow \text{PRÄS}[\text{laufen}'(m)]$

(36')은 발화시와 언급시가 동일하며 이때 Maria가 laufen하면 '참'이다.

(37) Hans kommt heute.

(37') a. Hans $\Rightarrow \lambda PP\{h\}$

b. kommen $\Rightarrow \text{kommen}'$

c. heute $\Rightarrow \lambda P_t \exists t[t \subseteq \text{heute}' \wedge P_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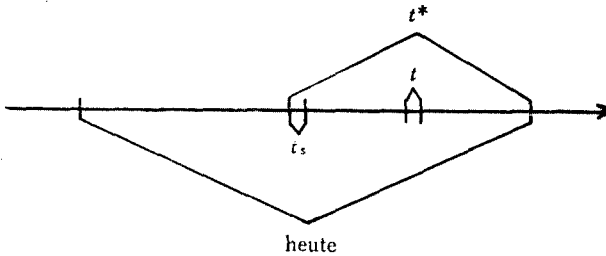
d. Hans kommt heute $\Rightarrow \lambda P_t \exists t[t \subseteq \text{heute}' \wedge P_t\{t\}](\wedge \lambda t[t=t^* \wedge \text{ZU}(t, \text{FUT}[\lambda PP\{h\}(\wedge \text{kommen}')]])$
 $\Rightarrow \exists t[t \subseteq \text{heute}' \wedge \lambda t[t=t^* \wedge \text{ZU}(t, \text{FUT}[\text{kommen}')]]](\{t\})$
 $\Rightarrow \exists t[t \subseteq \text{heute}' \wedge t=t^* \wedge \text{ZU}(t, \text{FUT}[\text{kommen}'(h)])]$

(37')d의 결과는 다음의 (37')e와 같다.

(37') e. heute' $[t=t^* \wedge \text{ZU}(t, \text{FUT}[\text{kommen}'(h)])]$

또한 (37')e에서 t, t^*, t_s (발화시), 그리고 부사 heute의 시간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37'')



(37'')에서 t^* , 즉 언급시가 t_s 이전의 시간간격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37)문장이 과거 시제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37')에서 FUT가 시제연산자로 채택된 이유는, 비록 (37)이 현재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지라도 표층적으로 전달하는 시간지시의미가 미래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관계는 다음의 문장 (38)에서도 동일하다.

(38) Morgen reist Johann ab

(38') morgen' $[t=t^* \wedge \text{ZU}(t, \text{FUT}[\text{abreisen}'(j)])]$

다음은 과거형으로 표현된 문장의 시간의미를 살펴보자.

(39) Hans wartete auf Maria.

- (39') a. Maria $\Rightarrow \lambda PP\{m\}$
- b. warten auf \Rightarrow warten auf'
- c. Hans $\Rightarrow \lambda PP\{h\}$
- d. Hans wartete auf Maria
 $\Rightarrow PR\ddot{A}T[\lambda PP\{h\} (^{\wedge} \text{warten auf}' (^{\wedge} \lambda PP\{h\}))]$
 $\Rightarrow PR\ddot{A}T[\text{warten auf}' (^{\wedge} \lambda PP\{m\}) (h)]$
 $\Rightarrow PR\ddot{A}T[\text{warten auf}' (h, ^{\wedge} \lambda PP\{m\})]$
 $\Rightarrow PR\ddot{A}T[\text{warten auf}'_*(h, m)]$

(39')은 t_s 이전의 어떤 시간에 Hans가 Maria를 기다리면 '참'이다.

(40) Gestern traf Peter einen Idi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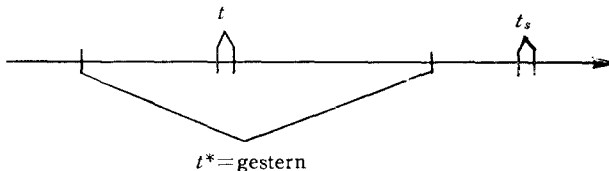
- (40') a. einen Idiot $\Rightarrow \lambda Q \exists x [Idiot'(x) \wedge Q\{x\}]$
- b. treffen einen Idiot \Rightarrow treffen' ($\wedge \lambda Q \exists x [Idiot'(x) \wedge Q\{x\}]$)
- c. Peter traf einen Idiot
 $\Rightarrow PR\ddot{A}T[\lambda PP\{p\} (^{\wedge} \text{treffen}' (^{\wedge} \lambda Q \exists x [Idiot'(x) \wedge Q\{x\}]))]$
 $\Rightarrow PR\ddot{A}T[\text{treffen}' (^{\wedge} \lambda Q \exists x [Idiot'(x) \wedge Q\{x\}]) (p)]$

(40') c.의 결과에 Montague식 δ_* 규약을 적용하면 다음의 d를 얻을 수 있다.

- (40') d. $PR\ddot{A}T[\exists x [Idiot'(x) \wedge \text{treffen}'_*(p, x)]]$
- e. Gestern traf Peter einen Idiot.
 $\Rightarrow \lambda P, \exists t [t \subseteq \text{gestern}' \wedge P_t \{t\} (^{\wedge} \lambda t [t = t^* \wedge ZU(t, PR\ddot{A}T[\exists x [Idiot'(x) \wedge \text{treffen}'_*(p, x)]]))]$
 $\Rightarrow \exists t [t \subseteq \text{gestern}' \wedge \lambda t [t = t^* \wedge ZU(t, PR\ddot{A}T[\exists x [Idiot'(x) \wedge \text{treffen}'_*(p, x)]])]]$
 $\Rightarrow \exists t [t \subseteq \text{gestern}' \wedge t = t^* \wedge ZU(t, PR\ddot{A}T[\exists x [Idiot'(x) \wedge \text{treffen}'_*(p, x)]])]$
 $(\Rightarrow \text{gestern}' [t = t^* \wedge ZU(t, PR\ddot{A}T[\exists x [Idiot'(x) \wedge \text{treffen}'_*(p, x)]])])$

위의 번역결과에서 시간의미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40')



- (41) Inge hat gepfiffen.
- (41') $PR\ddot{A}T[\text{pfeifen}'(i)]$

(41)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영어의 HAVE와 같은 새로운 연산자가 설정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다음의 문장은 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42) Müller ist eingeschlafen (\Rightarrow Müller schläft jetzt).
- (42') $PR\ddot{A}T[\text{einschlafen}'(m)]$

(42)에서도 PRÄT 연산자 대신에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는 (41')과 (42')처럼 기술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 이유는 독일어의 완료형이 나타내는 시간 의미가 일반적으로 과거형과 동일하며 (42)에서 처럼 지속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가 주로 동사의 고유 의미 자질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2')과 같이 일단 einschlafen이 발화시의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시간의미로 파악한다. (42)의 경우에 해당하는 동사는 소위 transformative Verben으로 einschlafen, kaufen, aufstehen, ankommen, herunterfallen, verlieren, aufwachen, bekommen 등이 있다.

(43) Morgen hat Monika den Roman gelesen.

(43') a. den Roman $\Rightarrow \lambda Q \exists y [V_x [Roman'(x) \leftrightarrow x=y] \wedge Q(y)]$

b. lesen den Roman $\Rightarrow lesen' (\wedge \lambda Q \exists y [V_x [Roman'(x) \leftrightarrow x=y \wedge Q(y)]])$

c. Monika hat den Roman gelesen

$\Rightarrow PRÄT[\lambda PP[m]] (\wedge \lambda Q \exists y [V_x [Roman'(x) \leftrightarrow x=y] \wedge Q(y)])]$

$\Rightarrow PRÄT[\wedge \lambda Q \exists y [V_x [Roman'(x) \leftrightarrow x=y] \wedge Q(y)]](m)$

$\Rightarrow \exists y [V_x [Roman'(x) \leftrightarrow x=y] \wedge PRÄT[lesen'_*(m, y)]]$

d. Morgen hat Monika den Roman gelesen

$\Rightarrow \lambda P_t \exists t [t \subseteq morgen' \wedge P_t(t)] (\wedge \lambda t [t=t^* \wedge ZU(t, FUT[\exists y [V_x [Roman'(x) \leftrightarrow x=y] \wedge PRÄT[lesen'_*(m, y)]]])]$

$\Rightarrow \exists t [t \subseteq morgen' \wedge \lambda t [t=t^* \wedge ZU(t, FUT[\exists y [V_x [Roman'(x) \leftrightarrow x=y] \wedge PRÄT[lesen'_*(m, y)]]])]$

$\Rightarrow \exists t [t \subseteq morgen' \wedge t=t^* \wedge ZU(t, FUT[\exists y [V_x [Roman'(x) \leftrightarrow x=y] \wedge PRÄT[lesen'_*(m, y)]]])]$

$(\Rightarrow morgen' [t=t^* \wedge ZU(t, FUT[\exists y [V_x [Roman'(x) \leftrightarrow x=y] \wedge PRÄT[lesen'_*(m, y)]]])].)$

위 (43)은 미래를 언급하는 부사가 완료형과 결합하여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시간의미를 나타내는 독일어의 일상적인 시제문장이다. (43)의 사건은 (43)d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간격 t 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t^* 인 morgen의 시간에서 Monika가 소설을 이미 읽었던 시간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직관에도 상응하는 것이다.

다음의 문장 (44)의 경우에서 부문장의 시간부사는 언급시가 아니라 행위시를 명기하고 있다(Smith, C.S.(1978) 참고).

(44) Maria sagte gestern, daß Willy letztes Jahr in SPD gewesen war.

(44') a. Willy war letztes Jahr in SPD gewesen war.

$\Rightarrow PRÄT[\lambda PP[w]] (\wedge \lambda t [t=t^* \wedge ZU(t, PRÄT[letztes Jahr-in-SPD-sein'(w)])])]$

$\Rightarrow PRÄT[letztes Jahr-in-SPD-sein'(w)]$

b. Maria sagte, daß Willy letztes Jahr in SPD gewessen war.

$\Rightarrow PRÄT[\lambda PP[m]] (\wedge \lambda x_3 \text{ sagen-daß } (x_3, PRÄT[letztes Jahr-in-SPD-sein'(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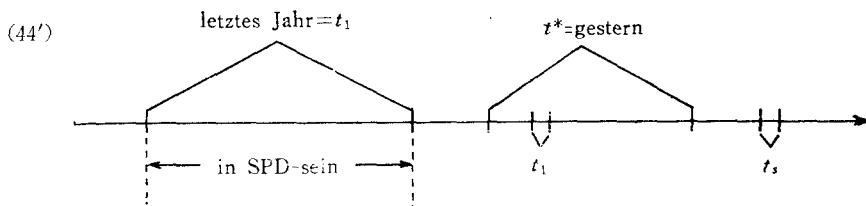
$\Rightarrow PRÄT[sagen-daß'(m, PRÄT[letztes Jahr-in-SPD-sein'(w)])]$

c. Maria sagte gestern, daß Willy letztes Jahr in SPD gewesen war.

$\Rightarrow \lambda P_t \exists t [t \subseteq gestern \wedge P_t(t)] (\wedge \lambda t [t=t^* \wedge ZU(t, PRÄT[[sagen-daß'(m, PRÄT[letztes Jahr-in-SPD-sein'(w)])]])])]$

$\Rightarrow \exists t [t \subseteq \text{gestern} \wedge t = t^* \wedge \text{ZU}(t, \text{PRÄT}[\text{sagen-daß}'(m, \text{PRÄT}[\text{letztes Jahr-in SPD-sein}'(w)]))]]$
 $(\Rightarrow \text{gestern}'(t = t^* \wedge \text{PPÄT}[\text{sagen-daß}'(m, \text{PRÄT}[\text{letztes Jahr-in SPD-sein}'(w)]))])$

위 문장(44)의 시간의미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t_2 는 t_1 이전에 있는 letztes Jahr의 최대부분간격(das maximale Teilintervall)이다.)

Literaturverzeichnis

- Aqvist, O.L. (1976): Formal Semantics for Verb Tenses as Analysed by Reichenbach, in T.A. van Dijk, Pragmatics of Language and Literatur, Amsterdam, pp.229-236.
- Bach, E. (1980): "Tenses and Aspects as Functions on Verb-Phrases", in C. Rohrer(ed.), Time, Tenses and Quantifiers, Max Niemeier, Tübingen, pp.19-39.
- Bartsch, W. (1980): Tempus, Aspekt, Modus, Diesterweg, Frankfurt am Main.
- Bäuerle, R. (1979): Temporale Deixis, Temporale Frage, Gunter Narr, Tübingen.
- Bäuerle, R./Stechow, A.v.(1980): "Finite and Non-Finite Temporal Costruction in German", in C. Rohrer, Time, Tense, Quantifiers, Max Niemeier, Tübingen, pp.375-421.
- Chrismann, O./Ramge, H. (1976): Mittelhochdeutsch, Max Niemeier, Tübingen.
- Comrie, B. (1981): On Reichenbach's Approach to Tense, CLS 17, pp.24-30.
- Cresswell, M.J. (1977): "Interval Semantics and Logical Words", in C. Rohrer(ed.), On the Logical Analysis of Tense and Aspect, Gunter Narr, Tübingen.
- Dowty, D.R. (1976): Montague Grammar and the Lexical Decomposition of Verbs, in Barbara H. Partee(ed.), Montague Grammar, Academic Press, New York.
- Dowty, D.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Reidel, Dordrecht.
- Dowty, D.R. (1982): Tenses, Time Adverbs, and Compositional Semantic Theory, LAP 5:1, pp.23-55.
- Engel, U. (1977): Syntax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Erich Schmidt Verlag, Berlin.
- Gabbay, D./Rohrer, C. (1977): Relative Tenses, in C. Rohrer(ed.), Papers on Tense, Aspect and Verb Classification, Gunter Narr, Tübingen, pp.99-110.

- Heidolph, K.E./Motsch, W. (1981):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 Akademie Verlag, Berlin.
- Huddleston, R. (1980): Criteria for Auxiliaries and Modals, 8. Greenbaum et. al., Studies in English Linguistics, pp.65-78.
- Klein, H.G. (1974): Tempus, Aspekt, Aktionsart, Max Niemeier, Tübingen.
- Ladusaw, W. (1977): Some Problems with Tense in PTQ, Texas Linguistics Forum 6, pp.89-102.
- Montague, R. (1979): Formal Philosophy, Selected Papers of Richard Montague, Yale University Press.
- Prior, A.N. (1967): Past, Present, and Future, Clarendon, Oxford.
- Prior, A.N. (1968): Papers on Time and Tense, Clarendon, Oxford.
- Paul, H./Moser, H. (1975): Mittelhochdeutsche Grammatik, Max Niemeier, Tübingen.
- Reichenbach, H.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Smith, C.S. (1978): The Syntax and Interpretation of Temporal Expressions in English, LAP 2, pp. 43-100.
- Steube, A. (1980): Temporale Bedeutung im Deutschen, Akademie Verlag, Berlin.
- Tichý, P. (1980): The Logic of Temporal Discourse, LAP 3, pp.343-369.
- Vater, H. (1969): Werden als Modalverb, in J. Calbert & H. Vater, Aspekte der Modalität, Gunter Narr, Tübingen, pp.71-148.
- Wunderlich, D. (1970): Tempus und Zeitreferenz im Deutschen, M. Hueber, München.
- 신수송(1981) : 범주문법 이론에 의한 현대독일어의 통사구조와 의미해석 연구, 독일문학 26, 한국독어독문학회.
- 신수송(1982) : 몬테규 문법이론에 의한 현대독일어 동사의미론 연구, 독일문학 28, 한국독어독문학회.
- 이병찬(1979) : 종속문법의 문제점, 독일문학 25, 한국독어독문학회.
- 이병찬/신수송(1983) : 독어학 개론, 한신문화사, 서울.

《Zusammenfassung》

Syntaktische und Semantische Untersuchungen der Heutigen Deutschtempo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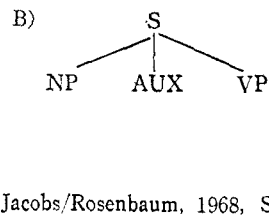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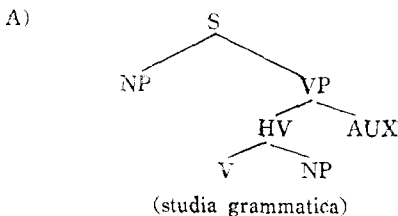
Jung, Dong-Gyu

(Inhaltsverzeichnis)

1. Ziel und Richtung
2. Begriffsbestimmungen für die formale Tempusbeschreibung
 - fundamentale Tempusbegriffe
 - Tempusoperator
 - temporale Adverbien
3. Probleme der syntaktischen Einführung von dem Tempus und den temporalen Adverbien
4. Versuch über die formale Tempusbeschreibung des heutigen Deutsch-Ausschnit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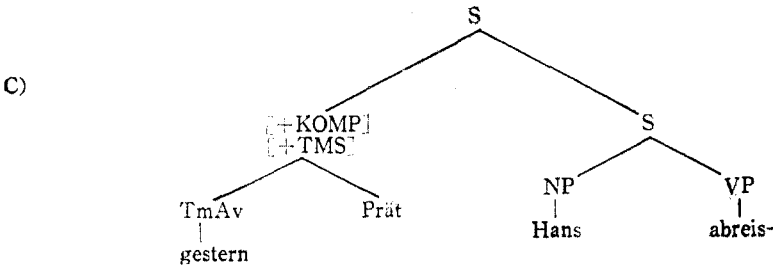
Das Ziel dieser Arbeit liegt darin, das deutsche Tempusystem kritisch dazustellen und die Tempusbedeutung des Deutsch-Ausschnitts mit Hilfe der formalen Grammatiktheorie adäquat zu beschreiben. Dieser "Deutsch-Ausschnitt" hält sich an das English-Fragment von PTQ (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Ordinary English, R. Montague, 1973), was besonders dessen temporal interessanten Teil betrifft.

Um dieses Ziel zu erreichen, habe ich den Versuch unternommen, die syntaktischen Ableitungsmethoden des Tempus und der temporalen Adverbien zu erklären und der syntaktischen Struktur entsprechende semantische Operatoren, Übersetzungsregeln, zu entwickeln. Soweit Auxiliarkomplex (AUX) Angaben über Modus, Numerus und Tempus des Verbs enthält, können die unterschiedlichen Auffassungen im folgenden zusammengefaßt werden:



In den obigen Strukturen wird AUX mit einem bestimmten Merkmal markiert oder

morphologisch realisiert. Aber in der vorliegenden Arbeit sind diese Auffassungen als nicht tragbar angenommen. Der Grund dafür beruht auf dem Charakter von Montague Grammar, danach der Isomorphismus verfolgt wird. So wird die folgende Aufnahme von Pullum/Wilson (1977) als adäquatere behandelt:



C') Gestern reiste Hans ab.

C) entspricht den in dieser Arbeit begründeten Begriffsdefinitionen-Tempus und temporale Adverbien als Satzoperatoren. Damit sind ihre semantische Funktion gegenüber dem Satzargument richtig erklärt. Und eine andere Vorgehensweise für syntaktische Tempusbehandlung, wie sie z.B. in PTQ (S.17) wählt, besteht darin, Person, Numerus und eben auch Tempus zusammen mit dem Subjekt einzuführen. Diese Verhaltensweise gerät aber in Schwierigkeiten mit Sätzen, die koordinierte VPs mit verschiedenen Tempora enthalten.

D) Ede hat das Problem gelöst und wird morgen darüber berichten.

Dieses Problem kann doch mit "Quantifying in" gelöst werden. Auf Grund der syntaktischen Bearbeitung werden Tempusoperatoren mit quasi-Reichenbachschen Indizes definiert.

- E) $[[PRÄT \phi]]^{i,j}=1$, g.d.w. $[[\phi]]^{i,j}=1$ und $i < j$
 $[[PRÄS \phi]]^{i,j}=1$, g.d.w. $[[\phi]]^{i,j}=1$ und $i = j$
 $[[FUT \phi]]^{i,j}=1$, g.d.w. $[[\phi]]^{i,j}=1$ und $i > j$
 $[[ZU(t, \phi)]]^{i,j}=1$, g.d.w. $[[\phi]]^{i',j}=1$ wobei $i' = [[t]]^{i,j}$
 $[[t^*]]^{i,j}=1$ (d.h., t^* ist Betrachtzeit)

Dabei sind die Tempusoperatoren zum Unterschied von den Priorischen Operatoren definiert. Das ist von großer Bedeutung für die formale Beschreibung der Tempusbedeutung. Z.B. beschreiben wir den folgenden Satz mit Hilfe der Priorischen Operatoren; *P* für Präteritum, *G* für gestern.

- F) Hans begegnete Marie gestern.
 F') a. PG(begegnen(Hans, Marie))
 b. GP(begegnen(Hans, Marie))

Weder $F')a$ noch b zeigt die richtigen Tempusbedeutung für F). Das bedeutet, $F')a$ und b können die Zeitspanne vor gestern referieren. So in dieser Arbeit sind die Übersetzungsregeln von dem revidierten PTQ folgendermaßen formuliert, und dadurch kann der Satz F) adäquater beschrieben werden.

G) a. SR_{12} : ist $\alpha \in TmAv$ und $\phi \in t(\text{Satz})$, so ist $F_{12}(\alpha, \phi) = \phi\alpha$ oder $\alpha\phi$

$TR_{12}:\alpha'(\lambda t[t=t^* \wedge ZU(t, \phi')])$

b. $gestern \Rightarrow \lambda P_t \exists t[t \subseteq gestern' \wedge P_t\{t\}]$

H) a. $Marie \Rightarrow \lambda PP\{m\}$

b. $begegnen\ Marie \Rightarrow begegnen'(\wedge \lambda PP\{m\})$

c. $Hans\ begegnete\ Marie \Rightarrow PR\ddot{A}T[begegnen'_*(h, m)]$

d. $Hans\ begegnete\ Marie\ gestern \Rightarrow gestern'(\lambda t[t=t^* \wedge ZU(t, PR\ddot{A}T [begegnen'_*(h, m)])])$

Zum Schluß habe ich die Möglichkeiten über die formalen Beschreibungsmethoden für den heutigen Deutsch-Ausschnitt im Stil von dem revidierten PTQ für English entwickelt. Diese Beschreibungsmethoden müßten auf die Ebene der Modallogik und der Textsemantik erweitert werden.